

# 아픈 역사의 그날...일본 오염수 도발에 '또 한번의 아픔'

1945년 8월 24일 귀국길 한국인 '우키시마호 대참사'로 수천명 숨져  
광양·여수·순천 등 방류 반대 집회...광주 26일 집회 열고 항의 행진  
전남도 전담반 구성 안전성 검사 강화·광주교육청 급식 안전대책 분주

78년 전 수천명의 조선인이 바다에 빠져 숨진 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1945년 8월 24일은 일제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들을 태우고 귀국하던 배가 폭발해 수천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우키시마호 대참사'가 발생한 날이다.

해방 이후인 1945년 8월 22일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는 수천 명에 이르는 조선인들이 들뜬 모습으로 모였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전범 기업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역을 당하던 고향으로 가기 위한 조선인들 4750t 급의 우키시마호에 몸을 싣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고향에 돌아 오지는 못했다. 24일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길이 108m의 우키시마호는 두 동강이 나고, 탑승객 대부분이 바다에서 희생됐다.

우키시마 대참사의 날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반발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광양 시민사회단체인 광양 시민행동은 광양읍, 중마동, 금호동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순천 시민행동

도 아침 선전전 이외에 오후 5시 집회를 연데 이어 24일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청사 앞에서 순천·여수·광양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주말인 26일에는 전국동시 집중행동의 날로 광주·전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오후 5시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국민의힘 광주시당까지 항의 행진을 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교육청은 후속 대응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전남도는 안전성 조사 확대, 해역 실시간 방사능 측정, 산지위판장 방사능검사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전남도는 '수산물 안전생산 관리 대책'에 따라 4개 팀, 8명으로 구성된 전담반(TF)을 구성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방사능 감시 등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해역·수산물 방사능 감시 체계 강화, 소비위축 대비 정부 지원 건의, 대국민 안전성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기존 62개 품종 800건에서 전 품종 1200건 이상으로 확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 17개 품목에서 21개 품목으로 강화 ▲원산지표시 품목 15개에서 20개로 확대 ▲해역 방사능 실시간 측정(4개소) 등 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여수시민행동 회원들이 23일 신기동 부영아파트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여수시민행동 제공>

책 본격 추진한다.

방류 지속 단계에서는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소비 촉진행사 ▲수산업 및 연관산업 피해대책 건의 ▲소비 위축 수산물 정부 구매 건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일본 고도화 액체 처리 설비(ALPS)의 주기적 안전성 검증자료 공유

요청 ▲수산물 안전성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광주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던 학교급식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품목과 검사 건수를 지난 6월 기준 65건에서 75건으로 확대했지만 2024년까지

100건으로 더 늘릴 예정이다.

식약청 방사능 검사는 2024년 15건에서 30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 영양 교사 및 학생들에 대한 식재료 방사능 안전성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오염수 난리인데...추석에 누가 전복 선물합니까?”

권익위 부위원장 안도서 간담회  
“김영란법 개정해봤자 뭐하나”  
어민들 플래카드 걸고 규탄



“이대로라면 추석에 누가 전복을 선물하겠습니까.”

23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완도를 안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한수연) 관계자, 한국전북수산업협회장, 전북유통협회장, 완도 수협조합장 등 20여 명도 동석했다.

국민권익위가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정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과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권익위는 법 개정에서 최근 명절 선물가액 30만원으로 상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도지역 어민들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영란법 개정이 의미 없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업계가 죽게 됐는데 선물가액만 올려봐야

소용 없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이어 “30만원으로 상향한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와 닿지 않는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전국민이 불안해하는데 누가 사서 먹겠다”고 지적했다.

완도지역 어민들은 간담회가 열린 안도문화예술의전당 앞에 ‘후쿠시마 오염수 폐기 반대’ 플래카드(사진)를 걸고 규탄했다.

전복 양식업을 하는 A씨는 “전복 가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한도액 상향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며 “지난월부터 전복시장이 얼어붙었는데 당장 오염수가 방류되면 악영향이 이번 추석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

다.

이어 “당장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 공포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고작 명절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설명회만을 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원성을 샀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완도=정은조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수십억 정부보조금 가로챈 전남대 교수 등 수사

광주경찰청, 불구속 입건

경찰이 수십억원 대의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남대 교수와 민간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전남대 A교수 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교수는 교육부 주관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전남대) 사업단장을 맡으며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중 2개 사업에서 30억원대의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

됐다. 이 과정에서 A교수와 같이 사업을 진행한 민간 업체 관계자와 대학관계자들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교수 등 사업단 관계자들이 참여업체와 짜고 사업계획서나 검사 확인서를 거짓 작성해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보고 지난 17일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외에도 이미 상용화된 손가락 동작 인식 클러브 시스템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와 관련한 다른 사업에도 수사를 확대해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검찰 수사관 음주운전 적발

광주지검 수사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청은 광주지검 A계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계장은 지난 18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 인근 이면 도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계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계장은 차량의 시동을 켜며 이면 도로에 한동안 정차하고 있었다. 경찰은 순찰 중 A계장 차량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A계장을 소환해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A계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뭉!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쿠폰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쿠폰!

NHCard **VISA**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빛고을로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